

스마트기술·모빌리티가 자유로운 스마트+빌딩 1만곳 세운다

- 19일 스마트+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... 건축산업 매출 12조원·일자리 13만개 창출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2월 19일(화)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 융합 혁신을 통한 국민의 스마트행복 구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간 분야의 혁신 정책으로 ‘스마트+빌딩 활성화 로드맵’을 발표한다.
 - 그간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 하헌구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, 산·학·연 65개 기관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 운영('23.2~)을 통해 건축물에 스마트기술을 더한 스마트+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였다.
- 로드맵에 따르면 도심항공교통(UAM), 자율주행, 스마트물류 등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건축물이 모빌리티 친화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마련과 함께 용적률·건폐율 완화 혜택 부여를 추진한다.
 - 지속 발전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건축설계·시공·유지관리 기술도 고도화하고, 다양한 기술을 통합관리하는 건축물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.
 - 특히, 스마트+빌딩 얼라이언스 중 28개 기관들과 함께 서울고속버스터미널, 가천길병원, 고양시-서대문구 청사에 대한 스마트+빌딩 적용 공동연구 MOU를 체결*하고 실제 구현방안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. *참고 첨부
- 한편, 로드맵 발표 이후에는 스타트업(새싹기업)과 청년이 함께 하는 스마트+빌딩 혁신 라운드 테이블이 이어진다.
 - 이 자리에서는 대학생이 제안하는 스마트+빌딩 조성 아이디어와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스마트+빌딩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, 이를 토대로 청년 고급 일자리 창출 등 건축산업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국토부는 국민들이 일상 공간에서 UAM, 자율주행,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親모빌리티, 親물류, 親환경 스마트+빌딩의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”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진철 (044-201-3755)
		담당자	사무관	조관우 (044-201-3758)
<공동>	건축공간연구원 건축정책본부	책임자	본부장	김영현 (044-417-9619)
		담당자	센터장	남성우 (044-417-9693)



참고

스마트+빌딩 공동연구 MOU 개요

유형	연구대상	참여기관
모빌리티 환승형	<p>서울 고속버스터미널</p>  <p>① 관광 연계 UAM 이동 ② 육상 수직형 버티포트 ③ 자율주행차 특화 ④ 광역교통수단 연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주관) 국토교통부, 건축공간연구원 ○(수요) 신세계센트럴시티 ○(플랫폼/IT) 솔리데오시스템즈, 에이테크 ○(UAM) 카크랩, 현대엘리베이터, 현대자동차 ○(모빌리티) MORAI ○(로봇) 코가로보틱스, 한국로봇산업협회 ○(건축) 삼우건축, 간삼건축, 해안건축, (주)코다, 현대건설, 대한건축사협회
재난응급형	<p>위례 가천길병원 신축</p>  <p>① 응급환자 UAM 이송 ② 자율주행 로봇 시스템 ③ 스마트 의료지원 ④ 병동 혁신케어 로봇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주관) 국토교통부, 건축공간연구원 ○(수요) 가천대 길병원 ○(플랫폼/IT) 네이버, 네이버클라우드, 국토정보공사, 에이테크 ○(로봇) 네이버랩스, 코가로보틱스, 뉴빌리티 ○(UAM) 카크랩, 현대엘리베이터 ○(건축) 간삼건축, 희림건축, 삼우건축, 현대건설, 스마트도시협회
지역주도 버티포트형	<p>경기 고양시 서울 서대문구 일대</p>  <p>① 일대연계 Commule ② 공항건축물 육상 버티포트 ③ 지역간 광역교통개신 ④ 지역간 광역 교통망 연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주관) 국토교통부, 건축공간연구원 ○(수요) 고양시청, 서대문구청 ○(플랫폼/IT) 국토정보공사 ○(UAM) 현대엘리베이터, MORAI ○(건축) 희림건축, 간삼건축, 파크이즈건축사사무소, 현대건설, 스마트도시협회